

도내 농가 부채, 갈수록 증가... 농민들은 '한숨만'

전북의 농가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지역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가구당 농가소득은 2,489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주(6,185만원)와 경기(4,565만원)에 이어 전국 도 단위 지역 가운데 3번째로 높았다.

전북 지역 농가는 2011년 2,566만원에서 2012년 2,536만원, 2013년 2,161만원, 2014년 2,682만원의 평균 부채를

황주홍 의원 통계청 조사결과

가구당 농가소득 2489만원
도 단위 중 3번째로 높아

도내 농가 평균 부채는
2682만원으로 해마다 늘어

안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가 전체 부채는

2015년 현재 약 29조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4%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전국 108만9,000농가의 평균 부채는 2,7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는 도내 농가소득이 거의 정체된 반면 농가부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전 농가소득과 비교하면 전북은 609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4.4%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특히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민생 붕괴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농촌 청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의원은 "농가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 지적이 있었고, 19대 국회에서 농가부채대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정부의 반대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면서 "정부는 최소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과 단계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김재수 해임건의안 '공조 불발'

야 '공동 행동'에 균열?

"지진 문제때문에 의미 없어"

국민의당 공조 파기로 인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야8당의 해임건의안 공동 제출 방침이 국민의당의 막판 공조 파기로 무산됐다.

국민의당은 당내 이견이 많아 공조 방침을 깰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야8당 원내대표간 합의사항을 백지화 한 것이어서 향후 각종 현안을 둘러싼 야당의 '공동 행동'에 심각한 균열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 장관 해임건의안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제출 여부 결정을 박 위원장과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위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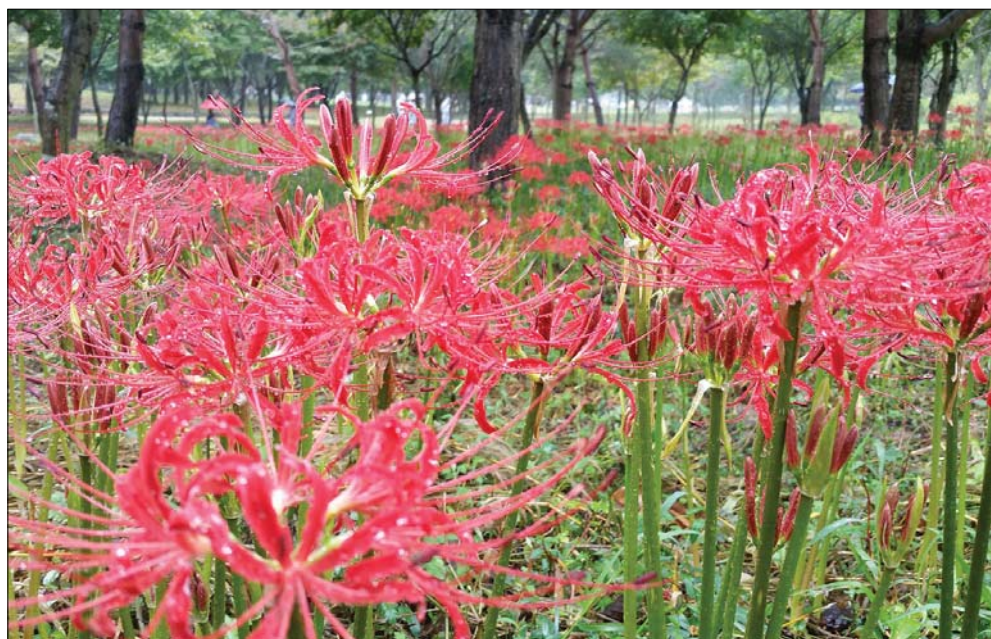
의총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상임위원 농식품위원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놓쳤다", "언론에 알려진 김 장관 관련 의혹이 왜곡된 측면도 있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핵이나 지진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해임건의안을 내는 게 의미가 있느냐" 등의 반대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당을 제외한 채 야당 소속 의원들만으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야8당은 지난 5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해임건의안 공조 방침을 파기하면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분회의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통과 될 가능성은 희박하게 됐다. /뉴시스



선운사에 핀 꽃무릇 20일 고창 선운사 일대가 온통 붉은 꽃무릇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고 있다. (사진=전주시민 제공)

부안 위도·격포항, '명품항구'로 키운다

도, 409억원 투입... 각각 '뉴시관광형'·'아름다운어항'으로 개발

부안 위도항·격포항 '관광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북도는 부안 위도항과 격포항에 총 409억원을 투입해 명품어항으로 탈바꿈시킨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어항인 위도항과 격포항이 각각 '뉴시관광형어항'과 '아름다운어항'으

로 개발된다. 이에 위도항은 울해 말, 격포항은 내년 초에 공사에 들어간다.

위도항은 오는 2018년까지 총 264억 원이 투입 돼 뉴시관광특화지구와 옛 낚시항구거리·해양레저관광 지구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된다.

이에 갯바위뉴시데크와 해상뉴시 콘도, 해양레저파크, 휴양펜션 등의 시설이 들어선다.

격포항에도 145억원의 예산이 투입 돼 관광명소화와 브랜드개발 등이 추진된다.

도 관계자는 "어업환경 변화에 따라 어업여건이 악화 돼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 절실하다"면서 "위도항과 격포항이 서해안을 대표하는 명품어항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세계적 희귀종 '맹구알 버섯'

남원 산내서 잇따라 발견

2014년부터 2개씩 발견되던 이어 올해엔 무려 8개



세계적 희귀종으로 알려진 맹구알 버섯이 남원시 산내면에서 작년에 이어 잇따라 발견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산내면 입석마을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는 주지환씨가 사과 밭에서 작업을 하다 우연히 발견했다. 2014년도에 2개, 2015년도에도 2개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올해 8월과 9월에는 같은 장소에서 무려 8개나 되는 맹구알 버섯이 발견되어 그 존재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8개의 맹구알 버섯은 지름이 17cm~30cm의 구형으로 축구공 모양과 비슷하며 표면은 백색을 띠고 있다.

라노필라 니포니카(Lanopila nipponica)이라는 학명으로 불리는 맹구알 버섯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유기질이 많은 대나무 숲 속, 풀밭, 잡목림에서 발생한다.

중국에서는 성난 말이라는 뜻의 마발로 불리며, 일본에서는 귀신의 머리라는 뜻의 오니투스베로 불리는 맹구알 버섯은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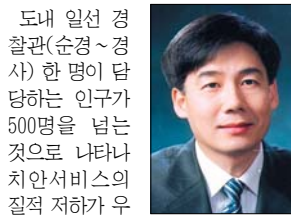
나라에서는 눈깔사탕을 뜻하는 맹구알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 한의학에서는 목이 붓고 아픈데, 코피, 부정지궁출혈, 외상출혈, 목이 쉰 데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며, 특히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근대 일본 최고의 백과사전이라는 화한삼재도화에 '끓여먹으면 맛이 희미하게 달콤하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부터 식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나, 워낙 희귀한 탓에 양식이 이루어지지 못해 식용으로 일반화 되지는 못했다.

최근에 남원, 담양, 전주, 영월 등 여러 곳에서 잇따라 발견되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한 맹구알 버섯이 올해도 같은 장소에서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며 맹구알 버섯의 생태와 효능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낳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도내 일선 경찰관 한명 담당인구 500명"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 "치안서비스 질적 저하로 이어져"



도내 일선 경찰관(순경~경사)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가 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21일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사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5년 경찰 1인당 담당 인구' 자료에 따르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담당하는 인구는 1인당 400명이다.

이중 국민의 치안을 현장에서 최우선으로 대면하는 일선 경찰관으로 범위를 좁히면 1인당 담당인구는

526명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이는 치안 선진국인 독일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320명과 프랑스의 347명, 미국의 401명에 비해 많은 숫자로 전북 경찰관들의 업무 피로도 가 그 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선진국에 비해 많은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가 결과적으로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국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경찰관의 과다한 업무는 피로도를 가중시켜 국민 안전을 저해하게 된다"며 "국민에게 더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선 경찰 인력의 정원 인배에 더욱 행령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1회 전북 한옥마을 통기타 라이브 음악풍경

9월 23일~24일 양일 저녁 7시 30분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특설무대

출연진

23일



메인: 자전거 타는 풍경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24일



메인: 고재근(Y2K)
노스텔지어, 모듬포크, 안재석

주최: (사)전북다문화진흥원 주관: (사)전북다문화진흥원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매일신문사 문의: 063-288-9700(전주매일 문화사업국)